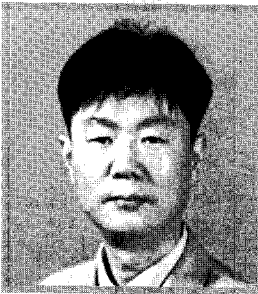


노동부 공직의사들의 건투를 빌며



한국산재의료원 동해병원
이 상 준

산재보험과 근무를 마지막으로 노동부를 떠나 산업보건서비스기관인 한국산재의료원 동해병원으로 자리를 옮긴지도 만 3년이 되어간다. 행정업무만 했던 탓에 현업으로 복귀한 초기에는 다소 어색한 점도 많았으나 이제는 제법 산업의학전문의 본업에 제법 익숙해졌다.

내가 노동부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박사학위를 마친 1997년 초에 노동부에서 의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산업보건관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 한 1년 정도 산업보건 행정을 경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한 것이 계기였다. 그렇게 30대 중반에 시작한 노동부 생활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40대 중반에 사직할 때까지 근 10년을 유지한 것을 보면 의외로 노동부에서의 생활이 나에게 잘 맞았던 것 같다.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과 진폐법에 의한 진폐심사의로서, 당시 내가 근무하던 산업보건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과제는 특수건강진단 제도개선이었다.

나는 노동부측 전문가로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등을 참관하게 되었고 산업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 등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현안이나 문제

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말을 타면 고삐잡고 싶다’는 속담처럼 내가 생각하는 방안 등을 정책이나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문역할만으로는 어렵고 직접 행정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보건 사무관으로 특채되어 건강증진, 건강진단, 사업장 보건관리,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 질환 예방, 산재보험 재활사업 등 산업보건과 산재보험 분야에서 여러 일을 하고 많은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

내가 보건사무관으로 특채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자정을 넘겨 끝났을 때 당시 모시던 국장님이 나에게 술을 사주시면서 “너는 노(NO)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해주신 말씀이 기억난다. 즉 ‘너는 의사이기 때문에 공직을 그만두어도 얼마든지 너의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로 굽히지 않는 소신 있는 공직생활을 해라’라는 뜻이었다.

나름 이를 금과옥조로 삼아 열심히 노력했지만 공직생활이 늘 순탄하거나 쉽지만은 않았다. ‘의사인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면서 전혀 원하지 않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고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중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때로 있었다.

또한 평소 소신과 다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고심 끝에 마련한 제도나 정책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져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이러한 어려움을 전부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30~40대에 걸쳐 노동부에서 보낸 10년은 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처음에 가졌던 소신과 열정만큼 우리나라 산업보건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지금 노동부에서 고생하고 있는 후배 의사들은 공직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가지고 있는 소신을 잘 발휘하여 우리나라 산업보건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기를 기대해 본다. 🍷